

아이들이 행복한 동네

광주 화월주

화정동·월산동·주월동
지역교육네트워크



광주지역 교육공동체 '화월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나우리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난 23일 마을 아이들이 강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화월주

학교·아동센터·문화단체·치과·마트 등 60여 기관·단체 참여

지했다. 보컬을 맡은 소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드럼 스틱을 쥔 소녀의 눈빛에는 배우 김아중의 노래 '마리아'의 노랫말처럼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또 연습실을 채운 신입 단원들의 손가락 끝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선배들의 연주에 부지런히 통기타 코드를 바꿔가며 열중하고 있었다.

이들은 광주 화정동, 월산동, 주월동을 중

초등학생들 '어색한밴드'
중학생은 '고래밴드' 활동
엄마들도 '엄연한밴드' 결성
위기 청소년 지원·진로교육

심으로 하는 교육네트워크 '화월주'가 후원하는 '어색한밴드'의 일원이다. 초등학교 4~5학년생으로 꾸러지고 일주일에 한 번 밖에 연습을 못하지만 지난 2011년 전국동네밴드경연대회에서 인기상을 거머쥐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 나주청소년수련원과 광주 유스퀘어 광장,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공연을 했고, 3년째 인근 초등학교 축제에 초대된 그야말로 '이 동네에서는 제일 잘나가는 밴드'다.

지난 2009년 결성된 '어색한밴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청소년 '고래밴드'에 가입하게 된다. 현재 '어색한밴드'에는 9명이 활동하고 있고, '고래밴드'는 12명이 팀을 꾸렸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들 밴드 단원들의 엄마들도 악기를 잡았다는 점. 자녀의 꿈을 이해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일을 마친 엄마 8명이 악기 연습을 하면서 최근 '엄연한밴드'를 결성했다.

이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확산은 마음껏 밴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화월

주' 덕분이다.

'화월주'는 이 지역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관련기관, 문화단체, 상담기관, 치과, 빵집, 마트 등 60여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교육 공동체다. 지역의 교육 관련 단체와 전문가, 상인, 의사 등이 각자의 힘을 모아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마을 공동체의 힘은 역시 강했다. '화월주'는 회원들의 후원과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진로교육, 문화예술교육, 체육활동 지원, 위기아동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어색한밴드'가 마을 놓고 꿈을 키울 수 있고, 이제는 부모들까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도 '화월주'의 후원 덕분이다.

참여 단체와 기관이 과거에는 각자 사업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형성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문성도 강화됐다. '화월주'가 진행하는 교육관련 실무자 전문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여 기관과 단체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화월주' 설상속 사무국장은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의미 있지만 각 마을에서 직접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고 아이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성장하는 '자발성'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마을과 아이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모두함께 잘사는 농촌

영광 여민동락

묘량면 영양리

농촌 복지 공동체

지난 23일 찾은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 '여민동락'(與民同樂) 공동체'는 중앙에 흰 색깔의 노인복지센터 건물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동락찻집, 오른쪽으로 동락점빵이 위치한 전원주택 같은 모습이었다. 동락찻집에 들어가 보니 가장 먼저 1000원 가량의 책들이 눈에 띄었고 어린이들이 테이블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책을 정리하다 취재진을 맞은 권혁범 센터장은 "원래는 찻집으로 만들었는데 기부받은 책들을 갖다놓다 보니 아이들의 사랑방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여민동락 공동체'를 공동 운영하는 강위원(43)·양효라(여·41) 부부와 권혁범(40)·김강선(여·38) 부부, 이영훈(37)·이민희(여·39) 부부의 꿈은 다함께 잘사는 농촌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우리가 꿈꾸는 농촌복지는 단순히 무료로 무언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잘사는 것, 즉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함께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공동체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여민동락 공동체'를 설립한 데 이어 노인복지센터, 동락찻집, 동락점빵, 여민동락 할매손 모싯잎송편 떡공장을 잇따라 개설해 운영중이다.

현재는 동네 어르신 21명에게 일자리를 나눠줄 정도로 자리를 잡았지만, 결실을 맺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이들 중 강씨는 졸업 후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었으며 권씨는 교사, 이씨는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중이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던 중 강씨의 고향인 영광으로 귀농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약국·식당·마트 등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전원생활은 쉽지 않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자리로 돌아갈까 고민도 했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고된 생활을



영광군 묘량면 '여민동락 공동체' 노인복지센터를 찾은 지역 노인들과 직원들이 '다함께 잘사는 농촌복지공동체'를 꿈꾸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여민동락공동체는 노인복지센터, 동락찻집, 동락점빵, 떡공장 등으로 구성된 농촌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강위원 양효라·권혁범 김강선·이영훈 이민희 부부

2007년 먹거리 일자리 함께 나누는 공동체 설립

노인복지센터·찻집·점빵·송편공장 등 마을 공동체 키워

버텼다.

지난 2008년 5월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시골찻집인 '동락카페', 이듬해 9월 모싯잎송편 생산공장인 '여민동락 할매손', 2011년 '동락점빵' 등 자신들이 그러한 농촌복지공동체를 점차 키워

갔다.

웃지 못할 사연도 많다. 처음엔 동락카페 앞에 10원의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커피자판기를 설치했다.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일부 운전기사들이 그러한 농촌복지공동체를 점차 키워

했다.

동락점빵은 1t 화물차를 이용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물품을 파는 이동식 구멍가게인데, 처음엔 확성기 소음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현재는 점빵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 세 부부가 귀촌하면서 마을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학생 수다. 이들이 마을에 정착한 후 3년이 지난 2010년 묘량중앙초교 학생 수는 12명, 당시 이 학교는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통폐합 대상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마을에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의 미래도 없다는 데 뜻을 모은 이들 부부는 통학차량을 마련, 신입생 유치에 적극 나섰다. 현재 학생 수는 25명. 이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권혁범 센터장은 "각종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나누며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농촌복지"라며 "현재는 주민들도 여민동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언젠간 농촌이 다시 각광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